

기획

문제해결력은 융·복합과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키워져야

미래교양리포트 : ② 교육 내용의 지향점

대학주보 특별 취재팀 khunew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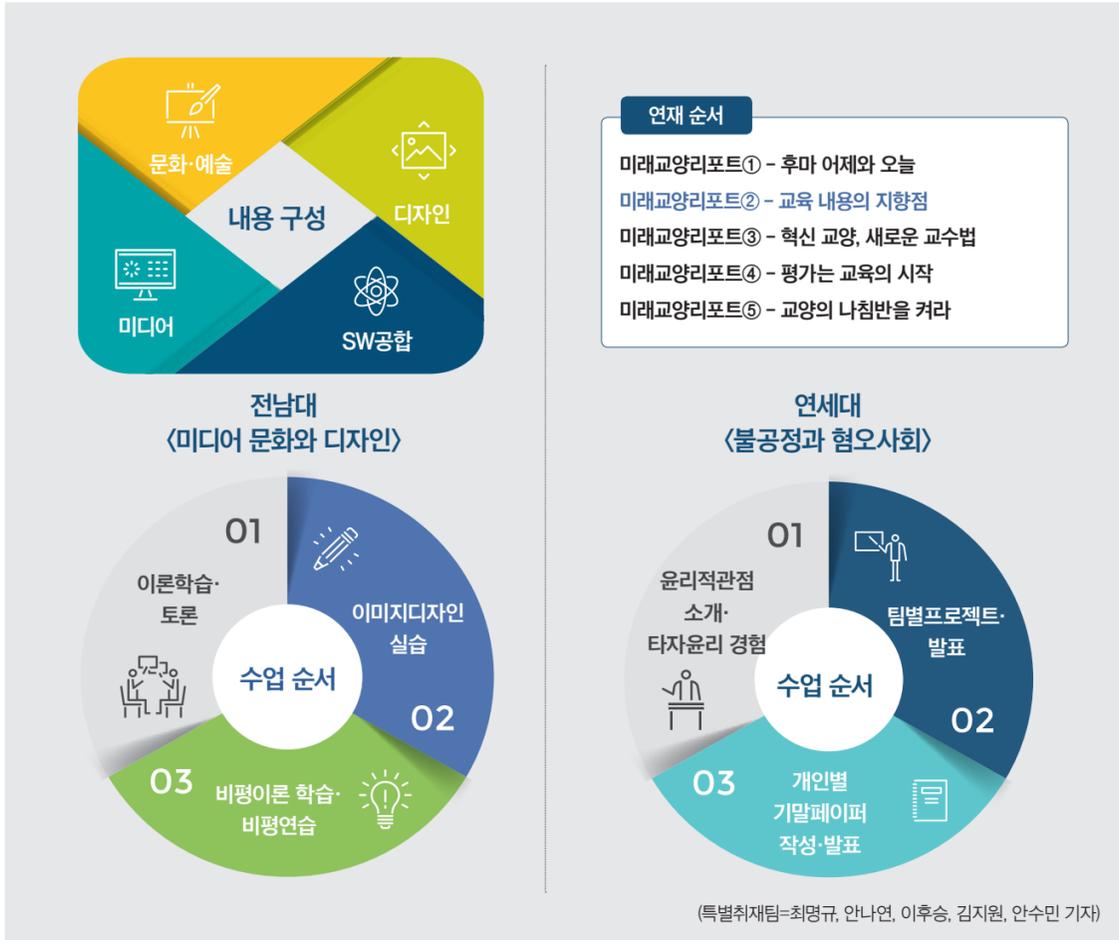
다양한 학문의 배움터. 후마 만족도 설문 결과 학생들은 교양 교육의 본질로 전공을 넘어선 다양한 학문의 전당을 뽑았다. 다수의 교양 교육 전문가들도 종합적 세계관이 미래 교양 교육의 가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종합적 세계관은 융합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껍데기 이룰 때 갖춰진다. 우리 신문은 이번 호에서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타 대학의 교양 교육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 기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교양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짚어봤다.

“대학에서 전공교육만 독려하는 것은 자기 분야에 한정된 지식인을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시작부터 함께한 도정일 대학장의 말이다. 이어 도 대학장은 학문 간의 융·복합과 비판적 사고 함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함을 말했다. 한국교양교육학회 흥성기 학회장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교양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시간”이라 표현했다.

다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두되는 가치는 문제해결력이다. 훗 학회장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전공-업무 일치도는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하나의 전공에 대한 심화된 지식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이 더욱 강조된다. 문제해결력은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즉 융·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증대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력이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힘이라면, 융·복합적 사유는 접근 방식이다.

해외 대학은 국내 대학보다 먼저 교양교육을 통한 융·복합의 가치를 알아봤다.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원형이 되는 하버드대는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연구를 거쳐 ‘교양 교육 TF’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교양교육을 준비했다. 2007년 완성된 하버드대학부생의 교양교육과정안은 “자유로운 탐구정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현실적 체험에 응용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브라운대 역시 동일하다. 브라운대는 오픈 커리큘럼(Open Curriculum)으로 학생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필



요한 과목만 수강하도록 권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는 역시 융합이다. 지난 2016년 브라운 대학에 입학해 컴퓨터 공학과 공공정책학을 복수 전공하는 최지원 씨는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나의 선택이 존중받는 느낌”이라 말한다. 다양한 과목을 뚜렷한 경계 없이 배울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돼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말하며 “결국엔 다양한 과목과 융합된 관점을 기르는 것이 내가 기존에 가진 틀을 깨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융합교육은 학풍이 뚜렷한 인재상이 굳건하게 지속돼 온 사립대학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주립대학인 버클리대 역시 융합의 가치를 중시한다. 버클리대는 필수 과목은 지정되지 않으나, 브레스 코스(Breadth Course)란 제도가 있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화학, 수학 등 일곱 개 분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궁극적으로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미국인 이어도 미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수업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버클리대는 대학 교육이 갖는 의미를 사회공헌에서 찾는다. 공동체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문제 해결력을 갖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지난 2017년에 버클리대를 졸업한 김희수(정치학) 씨는 “인턴 및 직장생활을 경험하며 실제 삶에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함을 느꼈다”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경험 덕분에 능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구성원의 관심 분야와 전공에 공감할 수 있었다”며 “공동체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편 위와 같은 융합의 가치를 잘 반영한 국내 사례가 있다. 2017년 교양기초교육 교과목 공모전의 융·복합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전남대의 ‘미디어 문화와 디자인’이 그 중 하나다. 미디어, 문화와 예술, 디자인, SW공학을 접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

결 능력과 융·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수업 시간 내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는 다양한 전공의 1,2학년이 협업을 통해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전남대는 융·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전공 교수 4명이 팀티칭 방식으로 교수한다. 문화와 문학을 전공한 류재한(불어불문학) 교수, 교양교육을 연구하는 민준기(독일언어문학) 교수, 문제기반 사고를 도모하는 정정호(디자인학) 교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생활 속 문제를 연구하는 이귀상(전자컴퓨터공학) 교수가 지난 4학기 동안 수업을 이끌었다. 과목 개발에 참여한 류재한 교수는 “21세기 학생들을 두고 19세기 교수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닌가 반성이 있었다”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진로가 준비된 현대사회에 적합한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개발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이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는 칸막이 사회가 아니다”라며 “전공의 의미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야와 관계없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해결력이다. 이러한 역량은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에 접촉하고 다각도의 관점을 가져야만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제로 2017학년도 1학기에 수업을 수강한 전남대 구효주(경제학 2017) 씨는 “대학에 입학해 처음으로 들은 수업이었는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야도 많이 넓어졌다”며 “공급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제학과지만 미디어 문화와 디자인 시간에 배운 디자인 방법론, 이미지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활용해 시각이 더욱 확장된 것 같다”며 “특히 지역사회 문제에 접근법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연세대에서 강의된 ‘불공정과 혐오사회’ 역시 2017년 교양기초교육 교과목 공모전 인문 및 사회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성조(숭실대 베어드학부) 교수가 개발한 교과목은 현대사회의 윤리문제를 조망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를 가능케 한다. 자료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론적 틀을 깨도록 한다. 인식론적 틀이 깨지면 결국 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융합이 쉬워진다.

해당 교과목을 개발한 이성조 교수는 “현대 사회는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곳”이라며 “한국사회는 그간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했는데, 강의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싶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언급하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시야에 타자를 담아내는 기술이 부족하면 아이디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소통의 밑바탕이 되는 융합을 강조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윤우섭 원장은 “대학마다 고유한 인재상이 있고 학풍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공유한다”고 말한다. 윤 원장은 “그 방향성이라 하면 궁극적으로 문제해결력을 갖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교양의 본질인 융·복합 속성,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게끔 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